

# 삭막한 도심 테우는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민토론회가 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마을공동체 대표, 마을관련 단체 활동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 마을활성화 방안 등을 토론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조선대 후문 도내기 시장, 청춘거리 조성 공동화 극복 '물모텔'

## 광주시 토론회 개최...5개 마을 사례 발표·활성화 방안 논의

조선대학교 후문 도내기 시장(마을)은 도심 공동화로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주민 간 소통 부족과 심각한 이기주의로 신뢰 관계마저 붕괴됐다. 이를 보다 못한 조선대 학생을 중심으로 청년층과 마을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전세대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 사업명은 도내기 문화마을로 정하고, 우선 청춘거리 조성에 들어갔다.

조선대 후문 일대에서 청춘리레이 거리 음악회, 청춘소통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가 하면 도내기 마을 입구 빈 공간에 '청춘아고라'를 마련하고, 음악회와 토론회, 일자리 창업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청년들이 나서자 도내기 마을에도 다시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요즘은 인근 푸른길과 연계돼 도시 공동화를 극복한 물모텔로 떠오르고 있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원산 4동 수방동 달피마을은 주민이 떠나면서 공·폐가 등 빈집이 늘어났다. 도난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어둡고 비탈진 골목길에는 생활쓰레기가 넘쳐나고 하수구의 악취도 심해졌다.

결과 주민들이 나섰다. 지난 2012년 주민 100여명이 모여 '달피마을 원산4동 살다'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마을 불편조사도 가능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불편한 곳을 찾

아내고, 마을의 역사 등도 조사해 마을 잡지까지 발간했다. 흥물이던 골목길 벽에는 주민들이 인근 농원에서 받은 일당을 모아 벽화를 제작했다.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결정형 커뮤니티의 성공 사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광주시 등 행정기관도 힘을 보탤다. 이 마을은 올해 정부의 5억여원짜리 마을 디자인 센터 조성 사업 공모에도 광주대표로 출전중이다.

광주시가 도심공동화 등으로 삭막해진 도심 속 마을 공동체 복원에 나선다. 자연마을형과 도심주택형, 아파트형 등으로 구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를 갖고 주민 스스로 낙후한 마을을 되살려낸 5개 마을 공동체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민선 6기 공약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업방식 등을 논의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시의회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임택·조오섭 시의원 등을 비롯한 마을활동가, 전문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봇물을 이뤘다.

발제자로 나선 광주발전연구원 민현정 연구원은 "마을공동체는 개인화와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도시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활사개공(活私開公·개인을 살려서 공공의 이익을 연다)의 정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주민 중심의 공동체 형성을 도울 안정적인 행정지원과 역량, 네트워크 강화 등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경기 광주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간과 육아, 교육에 대한 부담"이라면서 "공유 공간을 활용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공공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구도심 재생사업을 잇는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 임택 광주시의원은 "마을공동체는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도심재생의 핵심"이라면서 "구도심지역을 재생시키고 마을공동체 벨트를 지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와 행정은 우리의 가정과 후손의 미래를 위해 존재하고, 그 지는 좋은 동네, 밝은 이웃, 마을에 있다"면서 "행정에서 간섭하지 않고, 마을공동체의 자립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2월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 뒤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아시아의 빛과 숨결을 잇다'

## 추진단, 문화전당 개관 주제 확정...TF팀 꾸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행사 주제를 '아시아의 빛과 숨결을 잇다'로 정하고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4일 추진단에 따르면 전당기획과를 중심으로 업무와 인력을 개편해 전당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함께 개관준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성일 추진단장을 팀장으로 관련 과장, 광주시, 아시아문화개발원 사무국장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전당 설립과 월별 콘텐츠, 프로그램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까지 참여하는 관계기관 정례회의도 이달 첫 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개관준비 TF는 광주하게 유니버시아드가 열리는 내년 7월 문화전당 일부 개방, 9월4일 전편 개관에 맞춰 업무를 추진한다.

추진단은 하계 U대회 기간 중에는 문화전당 문화정보원의 라이브러리파크, 문화창조원 복합5.6관, 어린이문화원 어린이스포츠체험 특별전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전당 개관 행사는 '아시아의 빛

과 숨결을 잇다'를 주제로 축제와 문화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편, 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전당 조직 설립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시행령 개정과 조직 구성, 인력 채용 등 전당 설립 절차도 준비할 계획이다.

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내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 준비뿐만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관점에서 전당의 비전을 실현할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화순전남대 병원

##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 기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국내 우수의 대형병원 29곳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 기관'으로 지정돼 외국인 환자와 간병인, 보호자에게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4일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의료기관 29곳에 대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추가지정 공고를 냈다.

김의료재단,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

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건국대 병원, 경북대 병원, 경희의대 부속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고려대의대 부속 안산병원, 고려대 의료원 안암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아주대 의료원,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연세대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원광대 의대 병원, 이화대 부속 목동병원, 인하대의대 부속

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중앙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한양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자발급인증번호만 제시하면 전자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진료와 관광을 할 수 있다.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도 외국인 환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내년 2월까지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

## 광양 172억·순천 161억 등...전남도 '특별기간' 지정

전남도가 지방세수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2015년 2월28일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으로 정해 각종 시책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다.

지난 9월 말 현재 전남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1081억원으로, 전년도(1080억원)와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광양시가 1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순천시 161억원, 여수시 141억원, 목포시 132억원 등으로 순이었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체납액 규모를 760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추진 실적에 따라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체납액이 없는 읍면동에 포상하는 것은 물론 1년 지난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오는 12월15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각 시도 누리집 및 신문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고질 체납자는 출국 금지, 신용 불량자 등록, 각종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해 체납액 260억원을 정리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 광주서 '공직 박람회'

## 내달 1일 66개 기관 정보 제공

안정행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서울·대구·청주·광주를 돌며 공직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2014 공직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최 일정은 서울(aT센터) 24~25일, 대구(엑스코) 27일, 충북(청주 충북대) 28일, 광주(광주시청) 12월1일 순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41개 중앙행정기관, 21개 지자체,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역대 최대규모인 66곳이 참여해 기관별 채용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는 경력채용과 소수직렬 지방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렬의 합격자들이 일대일 상담을 한다. 상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www.gojobs201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www.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1110-종-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세션 30여종) | 황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물세라, 써마지, 웨너트 복합치료  
② 에드를 레이저·스쿠스팀,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③ 체오 얼얼 레이저·헤파맥스, 듀오오우드체오  
④ 피부 미백·큐비나스원·엑셀V, 켈름맥스, 큐비레이저  
⑤ 주름·출타·프락셀등원, 울트라맥스싱크로, 프랙토리 인트라셀, 프락셀 세나  
⑥ 모공·엔티지, 프락셀5종  
⑦ 비만·네오모드,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 385-7575, 1177 | 에스테틱 :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윤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 528-1415 | 무료전화 : 080-707-7575 | 에스테틱 : 525-7555